

스티브 잡스의 10대 걸작들

1976 애플 I

애플이 내놓은 첫 컴퓨터 제품으로 생산 대수는 많지 않았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이 디자인하고 잡스가 자금을 모으고 마케팅을 맡았다.

1977 애플 II

최초로 성공한 개인용 컴퓨터 가운데 하나로 기술자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제품은 수차례 업그레이드를 거쳐 1993년까지 생산된 바 있다.

1983 리사

잡스가 제록스사의 팔로알토연구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첫 번째 상업용 컴퓨터다. 마우스로 작동되는 아이콘, 윈도우, 커서 등이 장착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췄으며 오늘날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기반이 된 제품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비싼 가격 때문에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1984 매킨토시

리사와 마찬가지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췄다. 가격이 싸고 속도가 빠른데다 제품 광고도 대량으로 실시했다. 곧 사람들은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유용한지 깨달았고 판매도 늘었다.

1989 넥스트 컴퓨터

애플에서 물러난 잡스는 강력한 워크스테이션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를 만들었다. 넥스트 컴퓨터는 많은 대수를 판매하지는 못했지만, 세계 최초의 웹브라우저를 만들어 내는 등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는 또한 오늘날 매킨토시와 아이폰 운영체제의 기초가 됐다.

1998 아이맥

잡스가 1996년 애플에 복귀했을 때 애플은 컴퓨터 시장이 움츠러들면서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맥은 이런 애플의 하락을 반전시킨 첫 번째 제품이다. 아이맥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의 이점에는 눈을 뜬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으며 최초의 가정용 컴퓨터로 주목받았다.

2001 아이팟

하드 드라이브를 갖춘 최초의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그 분야에서 성공한 최초의 모델이다. 휴대용 전자기기로의 애플의 사업 확장은 큰 파문을 불러왔고 아이팟의 성공으로 아이폰즈 음악스토어와 아이폰 출시의 길을 열었다.

2003 아이튠즈

아이튠즈의 등장으로 귀찮고 불법 내려받기가 만연했던 디지털 음원 구매가 간편해졌다. 아이튠즈 스토어는 2008년 미국 최대의 음반 소매점이 됐다.

2007 아이폰

매킨토시가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 해낸 일을 휴대전화 시장에서는 아이폰이 해냈다. 아이폰은 스마트폰을 좀 더 활용하기 쉽게 만들었고 다른 모든 스마트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를 통해 애플은 이제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 됐다.

2010 아이패드

애플을 포함한 수십개 회사가 아이패드 이전에 태블릿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어느 한 제품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아이패드가 마침내 이를 깨고 컴퓨터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스티브 잡스(Steve Jobs)
1955~2011

편집 | 인도영 기자 ydolove@donga.com 트위터@sc7do02



Goodbye! Steve Jobs

1955-2011

5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는 성공의 아이콘임과 동시에 영화보다 더 파란만장한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는 단순히 애플의 창업자, CEO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IT계의 혁명가였다. 사진은 애플사 웹사이트에 게재된 스티브 잡스의 생전 모습. UPI연합

고마워 잡스! 당신 덕에 지구의 삶이 행복해졌어

3 잡스, 파란만장했던 인생

‘혁신’의 또 다른 이름 ‘스티브 잡스’가 향년 56세로 영면(永眠)했다.

애플호의 선장으로 전 세계 정보통신(IT) 시장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그의 사망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애플은 5일(현지시간) 성명서를 통해 “애플 한 마음으로 스티브 잡스가 오늘 사망했음을 알린다. 스티브는 영명함과 열정, 에너지가 멈추지 않는 혁신의 원천이 됐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인생은 풍부해지고 향상됐다. 그로 인해 이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성공의 아이콘이었던 잡스는 어느 할리우드 영화의 사나리오 보다 더 극적인 삶을 살았다. 순탄치 않았던 영웅의 인생을 4개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1 출생의 비밀

출생부터 달랐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자랐을 것 같지만, 아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아로 자랐다.

잡스는 1955년 2월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리아계 유학생이었던 생부 얀돌파다 존 잔달리와 미혼모 조앤 심슨의 아들로 태어났다.

생모는 위스콘신 대학생생.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폴 클라라 잡스 부부에게 입양시켰다. 당초 양자로 가기로 했던 유복한 집에서 여자 아이를 위해 갖 길이 없어진 때문이었다.

생모는 아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집을 원했지만 이들 부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양

입양아로 성장… 애플 창업 성공가도 경영위기·동료 배신으로 퇴출 시련도 세계 최초 3D 애니 토이스토리로 재기 13년만에 애플 복귀…1년새 흑자 신화 최정암 투병중 아이폰·아이패드 IT혁명



영웅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다. 스티브 잡스의 죽음을 추모하는 누군가가 ‘안녕(bye)’이란 글자를 새겨 넣은 사과 하나가 애플 스토어 앞에 쓸쓸히 놓여 있다. 파사데나(미 캘리포니아주) | AFP연합

모는 고졸도 아니었다. 이 때문에 생모는 입양을 거부했다. 양부모가 잡스의 대학입학을 약속하고서야 비로소 입양을 결정했다.

2 창업 그리고 성공

잡스는 초등학교 시절 공부에 별 다른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 하지만 유독 전자제품에는 호기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장해 1972년 오리건주에 있는 명문 리드대에 입학해 철학을 공부했지만 그것도 잠시, 단 1학기 만에 중퇴했다. 평범한 노동자 양부모가 힘들게 만

들어준 대학등록금과 수업료가 전 재산과 다름 없다는 것을 안 뒤 대학을 포기했다.

대신 청강생으로 심취한 것은 글자와 디자인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 타이포그래피였다. 잡스의 이 공부는 훗날 애플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글씨체에 그대로 녹아들었다.

잡스가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은 1976년 컴퓨터 천재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컴퓨터를 창업하면서부터다. IBM으로 대표되는 대형 컴퓨터만 존재하던 시절, ‘애플 II’라는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PC)를 내놓아 선풍적 인기를 모았다. 각 개인이 PC를 가지게 된 것도 이 때부터다.

애플 II로 돈방석에 앉은 그는 한 순간에 성공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3 배신과 재기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잡스도 명달 아 위기를 맞는다.

대기업 IBM이 PC시장에 진출하면서 애플 PC의 물풍은 빠르게 사그라졌다. 잡스는 이 때문에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다. 아이러니 한 것은 자신이 직접 영업한 최고경영자 존 스컬리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밀렸다는 점이다. 엄청난 배신이었다.

그러나 잡스의 오욕이 같은 생명력은 여기서 빛을 발한다. 컴퓨터그래픽 영화사 픽사를 인수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그는 세계 최초의 3D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를 전 세계적으로 흥행시키며 또 한번 자신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다. 반대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지 못하던 애플은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는

다. 1997년 적자가 18억 달러에 이른 애플 이사회는 마지막 결단을 내린다. 경영의 귀재 잡스의 복귀였다.

회사에서 쫓겨난 지 만 13년 만인 1998년 한 시적 CEO로 복귀한 그는 불과 1년 만에 애플을 흑자로 돌려세운다.

혁신적 디자인의 아이맥을 앞세운 결과였다. 그리고 2001년, 잡스는 아이폰 풍광의 시발점이 된 아이팟을 내놓는다.

이후 잡스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공개하는 제품마다 전 세계적 인기를 모으며 IT업계에 일대 지각변동을 가져왔다. 내로라하는 글로벌 IT기업들도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 인간질을 썼다.

4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전설

거칠 것 없어보였던 잡스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경쟁자도 시장도 아닌 병마였다. 2003년 췌장암 선고로 받은 잡스는 이후 투병과 회복, 복귀를 줄곧 반복하면서 애플을 세계 최정상의 IT기업을 키워나갔다.

2009년 간 이식 수술까지 받는 등 치열하게 투병했지만 병에는 장사가 없었다. 잡스는 올해 3월 아이패드2 프레젠테이션 행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식 석상에 나서지 못했다. 8월 팀 쿡에게 바통을 넘기고 물러났다.

그리고 두 달 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는 그를 추종하는 전 세계 IT제품 소비자들을 뒤로 하고 세상과 작별했다. 이제 세상을 바꾼 천재는 전설이 됐다. 아니, 신화가 됐다.

김영근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다르게 생각하라”…“해군 아닌 해적이 돼라”

3 잡스가 남긴 어록과 일화들

세계 ‘IT의 제왕’ 스티브 잡스는 파란만장한 그의 삶 속에서 숏한 일화를 남겼다. 각종 매체와 저서에 소개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한다.

● “다르게 생각하라”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1997년 임시 CEO로 복귀한 잡스는 신기술, 신제품 관련 부서를 순시한 뒤 당시 진행 중이던 제품 개발 계획을 몽땅 폐기하라고 했다.

항의가 빗발치자 잡스는 단 두 단어로 임직원들을 침묵케 했다. “Think different!(다르게 생각하라)” 이로써 MP3 플레이어 아이팟, 스마트 MP3 플레이어 아이팟터치, 아이폰, 아

이패드 등으로 이어진 애플의 혁신 행진이 시작됐다.

● 평생 설렁물만 팔 겁니까

1983년 애플이 주식공개를 하면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려는 주주들의 요구가 빗발쳤다. 잡스는 펄시콜라를 코카콜라의 호적수로 키워낸 존 스컬리 당시 펄시 부사장을 데려오기로 마음먹고 직접 그를 만나러 갔다.

실리콘밸리의 고만고만한 유망주 중 하나였던 애플의 러브콜에 떨떠름해하던 스컬리에게 잡스는 한 마디를 남긴 뒤 발걸음을 돌렸다.

“평생 설렁물만 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며칠 후 스컬리는 애플로의 이직을 결정했다.

● 해고의 달인(?)

평생 ‘남과 다르게 생각하기’를 모토로 삼은 잡스는 직원들의 관성적인 업무 스타일을 용납하지 못했다.

CEO 시절 미국 표준 회계기준이 쓸데없이 복잡하다고 생각한 잡스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불러 “애플만의 단순한 회계방식을 만들어오라”고 지시했지만 CFO가 그 일을 해내지 못하자 곧바로 경질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하루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직원에게 말고 있는 업무를 물은 뒤 “그 일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일인가”고 질문했다. 직원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당신은 해고야”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다.

● 해적두목 잡스

1980년대 초중반 잡스와 함께 애플의 초석을 마련한 제이 엘리엇 전 애플 수석부사장에 따르면 잡스는 어느 날 직원들에게 “해군이 아니

라 해적이 돼라!(Pirates! Not the Navy!)”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나눠줬다고 한다.

이는 소형 보트에 몸을 실은 소수의 인원으로서 거대 상선을 장악하는 해적들의 효율적인 팀워크를 본받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 “내 안목을 알아주는 자에게는 2천달러 시계가 아깝지 않다”

엘리엇 전 부사장에 따르면 잡스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차고 다녔던 고급 손목시계가 멋지다고 칭찬하자 그 자리에서 시계를 풀어 선물했다고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알아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었다. 이후 잡스는 집무실에 개당 2000달러(한화 약 237만원)짜리 시계 한 상자를 비치해 놓고 선물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인기클릭 베스트 3’는 기사 넘쳐 쉽니다